

Pamela에서의 자기발견의 주제

최 인 환

서 언

소설 장르의 발생에 관한 논의에서 예외없이 거론되는 주요작가로는 Defoe, Richardson, Fielding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18세기 전반부에 작품활동을 하며 기존의 로망스 양식의 이상적(理想的)이고 허황된 주제와 서술방식을 탈피하여 있을법한(verisimilar)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새로운 문학풍토를 개척하였다. 원시적 형태의 소설, 혹은 소설 '비슷한' 작품으로는 *Don Quixote*나 *Pilgrim's Progress*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소설이 본격적인 문학양식으로 정착된 것은 위의 작가들에 이르러서이다. 이들 작가의 작품중 시기상으로 가장 앞선 것은 *Robinson Crusoe* (1719)이지만, 전근대적인 산문이야기(prose tale)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소설로 완전한 전이가 이루어진 것은 Richardson의 *Pamela* (1740)에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

*Pamela or Virtue Rewarded*²⁾는 Richardson이 처음부터 소설로 의도하고 쓰기 시작한 작품은 아니다. 이 점은 Richardson이 그의 예찬자인 Johannes Stinstra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명확해진다. 여기에서 그는 출판업자들로부터 시골독자들이 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서한집을 집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글을 써내려 가는 과정에서, “예쁜 소녀들이 그들의 정조를 노리는 뱀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에 관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Pamela*의 모태가 되었다고 말한다.³⁾ 그가 두달만에 완성하여 익명으로 발표한 이 작품은 출판되자마자 폭발적인 선풍을 일으켜 영문학사상 최초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른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화란의 극작가 Holberg같은 사람은 전 유럽이 *Pamela*의 덕목을 칭송하는 ‘파멜라주의자’와 그녀의 정조관념을 비꼬는 ‘반파멜라주의자’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 *Pamela*의 인기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⁴⁾

그렇다면 *Tom Jones*처럼 좀더 짜임새있고 읽는 재미도 더 주는 작품보다도 *Pamela*가 더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18세기 영국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an Watt는 18세기 초 독서대중의 형성에 관해 분석하는 가운데, 가내수공업이 쇠하고 경제적 분업이 확립됨으로써 가정에서 여성들에게 여가가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들

1) Harrison R. Steeves, *Before Jane Austen: The Shaping of the English Novel in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53-54 참조.

2) Samuel Richardson, *Pamela or Virtue Rewarde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0). 이하 *Pamela*로 줄이고 인용시에는 페이지 수만 표기함.

3) 1753. 6월 2일자 편지.

Alan Dugald McKillop, *The Early Masters of English Fiction* (Lawrence, Kansa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56), pp.49-50에서 재인용.

4) Mark Kinkead-Weekes, *Samuel Richardson: Dramatic Novelist* (London: Methuen, 1973), p.7 참조.

이 새로 대두한 소설의 중요한 독서대중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⁵⁾ 그는 계속해서, 경제적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경향, 그리고 여성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 등이 그들로 하여금 배우자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따라서 당시의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였던 결혼과 성(sex)의 문제를 여성취향적으로 다룬 *Pamela*가 독서대중의 기호에 영합했던 것은 거의 필연적인 귀결일 것이다.

*Pamela*는 상업적 성공에 비례하여 솔한 공박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 ‘반파멜라주의자’인 Fielding이 *Joseph Andrews*서문과 *Shamela*를 통하여, *Pamela*가 애지중지하는 정조가 실은 위선(hypocrisy)의 가면에 다름아니라고 신랄하게 풍자했던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Richardson은 원래 의도한 도덕성이 못사람들에 의해 곡해되고, 또 유사 해적출판물들이 범람하자 *Pamela, Part II* (원제목은 *Pamela in Her Exalted Condition*)를 출간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자에 의해 이 *Part II*는 다분히 Richardson의 자기변호적 성향이 농후하고, 그 예술성이 전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에⁷⁾ 필자는 본 논문에서 *Pamela* (Part I)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Pamela*의 성격은 여러가지로 규정될 수 있다. 우선 Richardson이 작품서문에서 ‘젊은 남녀들을 교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라고 내세우는 의도를 감안하고, *Pamela*가 Mr. B(앞으로는 편의상 ‘B’로 약함)의 집요한 협박과 감언이설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의 은총을 구하는 가운데 정조를 굳게 지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작품은 일종의 도덕적 훈계문으로 간주될 것이다. 반대로 점잖은 독자에게는 외설적으로 보일 소지도 있다. 가령 *Pamela*가 침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타난다는 점이 그렇다(93, 238 등). 또 그녀를 범하려는 B의 행위가 자극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분은 저를 그 분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어요”(63)라든가, “그 분은 내 가슴에 손을 집어 넣었다”(242) 등의 귀절이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Pamela*는 성적자들이 일독을 권하는 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설서적(pornography)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⁸⁾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사회고발적 색채가 농후한 귀절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우선 ‘편지 23’에서, 상전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는 ‘가상한’ 하녀 *Pamela*를 ‘구경’하러 온 이웃 상류사람들을 보는 그녀의 눈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저는 자신들의 공적보다는 조상들의 공적에 의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일류 양반들의 어리석음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것은 그들이 다른 공적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니까요. (84)

또 “내 영혼은 공주의 영혼만큼이나 귀중하다”(197)라든가, “언젠가는 그들[귀족들]이 우리

5)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3), pp. 47-49 참조.

6) Watt, pp. 159-160 참조. 기타 18세기 영국 여성들의 지위에 관해서는 Pat Rogers, *The Augustan Vision* (London: Methuen, 1974), pp. 89-91 참조.

7) Kinkead-Weekes, p. 72.

A.D. McKillop, “Epistolary Technique in Richardson’s Novels,” *Samuel Richard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ohn Carrol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pp. 142-143 등 참조.

8) Watt, p. 196 참조.

와 동등하게 될 날이 곧 올거야”(294)와 같은 그녀의 말은 사회적 평등을 부르짖는 구호로 들리기도 한다. 아울러 B가 Pamela에게 자신의 과거를 예로 들며 귀족사회의 타락한 도덕관과 결혼풍속도를 상세히 말해 주는 부분(463-466)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은 자칫 작가 혹은 주인공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이나 작가의 메시지에 경도될 우려가 있고 작품자체의 예술성을 간과하기 쉽다. Richardson이 *Pamela*를 통하여 이룩한 예술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서, Watt의 견해대로 그의 작품이 기존의 삽화적 플롯을 지양하여 구애(courtship)라는 단일한 행위로 작품을 진행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작품을 읽다 보면 플롯이나 행위 등의 형식상의 요소가 짜임새 있게 구사된다는 점 외에도 주인공의 섬세한 심리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도 정적인 심리상태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그 변화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주인공의 자아확장, 즉 정신적 성장과정이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Pamela*에서는 여주인공이 정조를 단지 육체적 처녀성으로만 여기다가⁹⁾, 어려운 시련들을 거치면서 진정한 정조는 정신적인 것이며, 또 그것은 사회적인 덕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성숙한 도덕의식을 갖게되는 과정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녀가 B에 대해 품고 있는 공포와 연모가 뒤섞인 야릇한 감정이 서서히 의식되어 가는, 즉 한 사람의 여성으로 눈여가는 것과 평행을 이루며 진행된다. 이렇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 가는 도정(道程)이 그려진다는 점이 *Pamela*의 예술적 근대성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것은 우리가, “소설의 내면적 형식은 문제성을 지닌 개인의 자기 자신을 향한…명확한 자기인식을 향한 여행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거나, “소설은 내면의 모험을 이야기한다”¹¹⁾라는 Lukács의 견해를 상기한다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고 본론에서 언급되었지만 편지 형식은 이러한 주인공의 정신적 편력을 나타내는 데에 상당히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앞으로의 논의는 *Pamela*의 도덕적 성장과 자기인식의 과정에 집중될 것이다.

본 론

우리가 작품의 초·중반부에서 대하게 되는 Pamela는 ‘문제성을 지닌’ 주인공이다. 그녀는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정조를 잃지나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B의 모든 언행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한다. 그리고는 자기방어에 급급하여 주위에 두터운 벽을 둘러 치고 그 속에 안주한다. 이와 같은 Pamela의 성향은 결국 그녀로 하여금 B를 포함한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며, 따라서 보다 차원높은 인간 관계를 이를 기회도 박탈해 간다. 그녀는 자기가 몸담아 살고 있는 사회와의 건전한 유대 관계는 그 구성원 상호간의 믿음에 기초한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¹²⁾ 그녀의 이러한 폐쇄성은 편지를 쓰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 앉는 쪽방

9) 18세기 영국에서 ‘virtue’나 ‘purity’ 등의 단어가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Watt, p.178 참조.

10) George Lukács, *The Theory of the Novel: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trans. Anna Bostock (Cambridge, Mass.: MIT Press, 1971), p.80.

11) Lukács, p.89.

12) M. Kinkead-Weekes, “An Introduction to *Pamela*,” *Pamela: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osemary Cowle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p.63 참조.

(closet)으로 상징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Pamela가 처음부터 B를 덮어놓고 의심했던 것은 아니다. Pamela는 Lady B가 죽은 후 그 아들 B가 자신에게 각별히 친절하게 대하자, “그분이 한때는 방탕했었지만 지금은 가장 훌륭한 신사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45)라며 감격해 했고 심지어는 “그분은 천사처럼 보였어요”(50)라고도 서슴없이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들은 딸에게 보낸 답장에서 B의 친절함 뒤에는 ‘혹심’(design)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니 경계하라고 한 뒤(46), 또 다음 편지에서는 그가 모친이 입던 옷을 그녀에게 주면서 ‘stockings’같은 여성의 속옷을 스스럼없이 입에 올렸다는 점을 들어 거듭 주의를 환기시킨다(51). 이제 그녀의 마음에도 B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 간다. Pamela의 부모들은 딸에게 정조를 ‘보석’처럼 여기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뿌리깊은 편견도 심어준 것이다.

어느 날 Pamela가 정원의 정자(summer-house)에서 혼자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B가 슬며시 안으로 들어 온다. 본능적으로 위협을 직감한 그녀는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려 한다. B는 할 얘기가 있으니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가까이만 가면 내가 두렵기나 한 듯이 피하려 하는구나”(54)라며 점잖게 그녀를 나무란다. 그는 Pamela를 누이인 Lady Davers에게 보내려던 당초의 계획을 바꿔 그녀에게 자신과 같이 자기 집인 Bedfordshire 저택에 계속 머무르는게 어떻겠냐며 의중을 묻는다. 그녀는 B와 한 집에 있으면 언제 변고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Lady Davers에게 보내달라며 사정한다. B는 자신의 의도가 하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격분하여 그녀에게 최초로 ‘공격’(attempt)을 가한다. 그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Pamela는 막무가내로 달아나려고만 한다. 결국 이 첫번째의 ‘공격’에서 B는 순순히 물러나면서 이 일을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한다.

2주일 후 B는 Pamela가 그 때의 일을 그녀의 부모와 가정부(housekeeper) Mrs. Jervis에게 누설했다고 화를 내며 다시 그녀를 범하려 한다. 이 장면에서 그가 Pamela에게 “너는 너 스스로의 적이다”(63)라고 통명스럽게 내뱉는 말은 Pamela의 실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녀는 B의 말을 무척대고 의심할 뿐 한번도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그녀의 태도가 15세의 어린 소녀가 가질만한 정조에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녀가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B의 이 예리한 지적에서 엿보인다. 또 B는 이 두번째의 시도가 있는 뒤에 Mrs. Jervis에게 “그녀[Pamela]는 편지에서 자신은 빛의 천사로 나타내면서도 그녀의 친절한 주인이자 은인은 악귀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소”(68)라고 불평을 늘어 놓는데, 이 말도 흑백논리에 사로잡혀있는 Pamela의 성격상 결함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B가 Pamela를 범하려고 한 것은 단지 육욕을 충족시키려는 행위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B도 당시 귀족사회 젊은이들의 방종한 관행을 따라 한번 만만한 하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용기’를 시험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18세기 영국에서 귀족계층의 성적인 방종은 보편적인 사회현상이었고, 또 하녀들은 상전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족이 하녀를 ‘건드리는’ 일은 비밀비재 했었고, 더구나 그것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¹³⁾ 그러나 이런식의 해석보다는 그가 Pamela를 강압적으로 정복하려고 한 것은 그녀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

13) Steeves, p. 89, 97, Watt, p. 162, 179 등 참조.

이 더 타당할지 모른다. 그가 귀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애정을 고백하고 호의를 보이는 것이 그녀에 의해 묵해되자 자존심이 상하여 핫김에 그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애정사이의 갈등이 그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이렇게 충동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따라서 B를 정육의 화신으로만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고 또 Pamela의 경우처럼 뚜렷이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도 역시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아직 감정처리에 미숙하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Pamela를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없고 그 감정표현도 진폭이 크다. 그래서 그녀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일일이 말대답을 할 때, “너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나 알아?”(55)라든가, “여기 있어! 내가 명령했으면 있으란 말이야”(80)등과 같이 엉뚱하게 권위를 내세워 그녀의 기를 꺾어 보려고도 한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Pamela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자, 그녀에 대한 애증병증으로 굴절되어 나타난다. B의 이 미묘한 심리는 그가 Pamela를 데리고 나가라며 Mrs. Jervis에게 지시하는 부분에서 선명하게 부각된다.

이 작고 간소한 계집애를 데려 나가시오. 나는 이 계집을 용서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소... 하지만 그냥 남아 있으라구. 가면 안돼. 아냐, 썩 나가라구. 아니지, 다시 돌아와.(90)

B라는 인물에 대해 좀더 부연하면, 그는 사랑을 위해서는 어떠한 댓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애지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영국사회에서 결혼제도는 두드러지게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¹⁴⁾ 특히 상류계층에서는 결혼당사자간의 애정에는 관계없이 상대방 가문의 부와 사회적 지위에만 눈독을 들이는 이른바 *mariage de convenance*가 보편적이었다.¹⁵⁾ 그런데도 B는 일개 하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비난에 힘써 맞서겠다”(276)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다.

Pamela가 자신의 제의를 거부하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자, B는 그녀를 내보내 주겠다고 한 뒤에 Lincolnshire에 있는 자기 저택에 감금시킨다. 남치당해가는 도중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이 시련들은 내 주제넘음이나 자만심의 결과가 아니예요”(130)라고 쓰는데, 그녀는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기 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B는 Lincolnshire로 편지를 보내 “너는 내가 수년 동안이나 알고 있는 사람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203)라고 하면서 그녀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한다. 여기에서도 Pamela의 문제점들은 B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Pamela는 편견에 사로잡혀 닫힌 마음으로 B와 바깥세계를 조망하기 때문에, 자기본위의 윤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아 확장의 기회를 스스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을 남성 일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까지 몰아 간 자아편집적 정절관을 수정하고, 계속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자아의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련의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Pamela는 자신의 허영과 교만에 대항하여,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의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향하여 점점 더 의식적으로 투쟁해야만 했다”¹⁶⁾

14) Watt, p.161 참조.

15) Steeves, p.88 참조.

16) Kinkead-Weekes (1973), p.59.

는 Kinkead-Weekes의 말은 그녀가 겪어야 할 시련의 의의를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

B의 Lincolnshire 저택인 Brandon-Hall에 감금된 그녀는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Williams목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도 꽤히 승락한다. Williams는 Pamela가 부탁한 대로 정원 후문의 열쇠를 구해다 주는 등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편지도 부모에게 몰래 전달해 준다. 이 사이에 Williams는 그녀에게 애정을 느끼고 구혼하지만 거절당하는데, 이 소식은 가정부 Mrs. Jewkes에 의해 곧 B에게 전해진다. 격노한 B는 치안판사(Justice of Peace)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Williams를 전격적으로 투옥시키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인(人) Colbrand를 Brandon-Hall로 급파한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Pamela는 오랜 기간 궁리해 오던 탈출계획을 곧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 기회만을 노리던 그녀는 드디어 Mrs. Jewke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탈출을 기도한다. 우선 그녀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정원의 연못에 옷가지를 던져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뒤, 정원 후문을 열려고 하지만 심상찮은 기미를 눈치챈 Mrs. Jewkes가 자물쇠를 바꾸어 달아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담을 넘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낱아빠진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녀는 크게 다치고 탈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땅바닥에 떨어져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해 본다. 다시 불들려 Mrs. Jewkes와 B에게서 당할 끔찍한 수모를 떠올려 보고 또 현재의 처참한 신세에 비판한 나머지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자살하리라고 마음먹고 연못으로 기어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연못가에서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긴다. 한참 동안의 고뇌와 갈등 끝에 그녀는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신의 권능을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이라고 마음을 돌린 후, 자기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 보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순간을 갖는다.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나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수난을 허여(許與)한 것은, 아마도 어리석은 책략에 헛되어 의지함을 자랑삼던 나로 하여금 완전히 그의 은총과 도움에 의존하도록 하려함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213)

이 귀절은 얼핏 보아서는 Pamela가 자신을 절망의 나락에서 인도해준 신의 섭리의 오묘함을 깨닫는 부분으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그보다는 Pamela가 자기 인식으로의 큰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기각성의 순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제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교만의 소치임을 인식하게 된다.

Pamela의 정신적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轉機)가 되는 이 탈출장면에서 벽이 허물어 지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다. Brandon-Hall의 담장이 Pamela의 자기충족적이고 닫힌 자아를 나타낸다고 볼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그녀가 바깥세계, 즉 사회와 한걸음 더 진전된 유대관계를 이루게 되리라는 강력한 암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Pamela가 옷을 물에 빠뜨려 자살로 보이게 하는 행동도 시사적이다. 이것은 물론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옷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매일 입고 다니는 자신의 분신같은 물건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이 행위가 갖는 보다 깊은 의미가 드러난다. Pamela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수장'(水葬)시키는 것은 구각(舊殼) 즉, 묵은 자아를 버리고 성숙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한, 새생명을 배태하는 엄숙한 의식(儀式)이고 또 상징적인 죽음일 것이다. 자아실현의 주제를 다룬 전형적인 작품중의 하나인 *Huck Finn*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Huck도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자신을 '교화'시키는 데에 혈

안이 되어 있는 Miss Watson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옷을 냇물에 띄워 자살로 가장한 뒤에 길을 떠나간다.

Pamela가 Lincolnshire에서 감금되어 시련을 겪는 동안 B는 편지만 몇차례 보낼 뿐 그녀의 탈출소동이 가라앉은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녀의 시련이 자기자신과의 투쟁이라는 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리고 Pamela가 자살의 유혹을 이겨낸 후 “나는 더 나쁜 적, 즉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데에 대해 그[신]에게 더 많은 찬양을 보낸다”(214)고 말하는 것도 이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또 그녀가 납치되어 간 날로부터 B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애할 때까지 40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비록 상투적인 설정이기는 하지만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될 부분이다.¹⁷⁾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기간이 바로 40일이기 때문이다. Pamela의 시련기간을 40일이 되도록 한 것이 Richardson의 의도임은, 이 Lincolnshire 부분에서만 유독 시간표시가 구체적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가령 ‘목, 금, 토요일, 내가 감금 당한지 14, 15, 16일째’(183) 혹은 ‘금요일, 감금당한지 36일째’(220) 등인데 독자들이 이러한 힌트를 이용해 앞뒤로 맞춰 본다면 어렵지 않게 ‘40일’이 도출된다. 게다가 Pamela와 B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Brandon-Hall은 마귀같은 Mrs. Jewkes가 지배하는 도덕적 황무지이므로 Richardson의 숨은 의도가 더 한층 분명해진다.

어쨌든 이 시련을 거치면서 Pamela는 교만과 무지에서 깨어나 신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사람들 서로간의 원초적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조라는 것도 그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적극적 미덕이 되어야 한다는 중대한 자기 인식에 이른다. 이렇게 본다면 그녀의 부모가 Pamela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격퇴하고 정복할 힘만 있다면 시련과 유혹이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었느냐”(69)라고 충고했던 말은 훗날 그녀가 Lincolnshire에서 갖는 이 각성의 순간을 예견하는 듯하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은 지나갔지만, 그녀가 어렵게 체득한 소중한 진리를 보다 공고히 할 담금질의 과정은 남아 있다. B는 Lincolnshire 저택으로 온 뒤에 Pamela를 범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또 다시 미수에 그치자 이체는 완전히 개과천선을 하게 된다. 그는 그녀와 정원을 산책하면서 과거의 비행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는 정식으로 구애하는데 그녀는 아직도 반신반의한다. Pamela가 그의 진의를 파악하기에 골몰해 있을 때 집시 점장이가 찾아와 그녀에게 불길한 예언을 하고는 은밀하게 쪽지를 남기고 간다. 이 쪽지에서 그녀는 B가 제안하는 결혼이 그녀를 유린하기 위한 사기극이니 조심하라는 귀절을 읽는다. Pamela는 이상할 정도로 이 익명의 편지와 점장이의 말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며, 그에 반비례해서 B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든다. 그녀의 뿌리깊은 불신성향이 사실 하루아침에 일소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녀의 이 불성실한 태도는 B의 분노를 초래하여 Pamela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가는 도중 그가 보내온 솔직하면서도 열렬한 편지를 받고 그녀는 그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며 그를 향해 되돌아간다. Pamela는 상호간의 신뢰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난관을 극복한 것이다.

이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분은 Pamela의 정신적 성장이나 또 극적인 사건들도 뚜렷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감을 준다. 따라서 이 부분은 Pamela가 결혼하여 신분

17) Kinkead-Weekes도 이점을 지적한다. Kinkead-Weekes (1973), p.34 참조.

이 격상된 뒤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녀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거나¹⁸⁾, 상류사회의 이모저모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기능이나 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도 하다. 결혼 후에 B와 Pamela는 서로 오만과 편견을 벗어 버리고 상대방에 대해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Lady Davers의 방문으로 소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상호신뢰와 부부에는 더욱 굳어지며 나중에는 Lady Davers도 잘못을 뉘우친다.

이제 Pamela에게는 한가지 시험만이 남아있다. 그들이 Bedfordshire로 살림을 옮긴 후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다. 우선 그는 그가 Oxford에서 방탕한 학창시절을 보낼 때 Sally Godfrey라는 여자와 알게 되었다고 서두를 꺼낸 다음, 그녀에게서 딸을 하나 낳게 되었으며 그 뒤 Sally는 Jamaica로 떠나고 딸 Miss Goodwin을 그가 몰래 양육해 왔다는 비밀을 처음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들은 Pamela는 한때 그녀도 B에 의해 품을 망친 위협에 처해 있었음을 상기해서인지 아무런 질투나 비난도 표시하지 않고 자기가 그딸을 맡아 정성껏 양육하겠다고 선뜻 제안한다. 그녀가 남편에게는 물론, 성적 방종의 소산인 배다른 자식에게도 그렇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그것은 Richardson이 작품의 도덕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녀를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녀가 원래 질투나 '바가지'와 같은 여성 특유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즉 그녀의 '성적 무특성(sexual colorlessness)¹⁹⁾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녀의 이 아량이 시련을 거치면서 얻은 도덕적 성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좀더 설득력 있다. Pamela의 이 행동은 남편 B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제 그녀가 보다 확장된 윤리의식과 명확한 자기인식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Pamela는 정조의 정신적, 사회적 의미를 깨달으며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B에 대해 품는 야릇한 연정을 조금씩 의식하게 된다. 그녀가 여성으로 눈여겨보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인식해 가는 과정 또한 작품을 일관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녀의 이 미묘한 마음의 행적을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녀가 하는 말의 뉘앙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가 그녀로 하여금 항상 B를 경계하여 순결을 더럽히지 않도록 통제를 가하는 'super-ego'라고 한다면, 그를 두려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남성으로서의 그를 느끼는 마음은 쉽사리 표출되지 않는 'id'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Pamela는 B가 두번씩이나 자신을 범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바로 떠나가지는 않는다. 게다가 자기의 '공격'이 번번히 실패로 끝나 창피만 당한데에 화가 난 B에게서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 즉 합법적인 허락까지 받은 셈인데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Pamela는 그녀의 편을 들어 집을 같이 나가기로 한 Mrs. Jervis에게 짐 챙길 시간을 준다며 1주일을 더 기다리기도 한다.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출발을 늦추는 것이 하녀로서의 마지

18) Kinkead-Weekes (1969), p. 61 참조.

19) Steeves, p. 74.

20) Patricia Meyer Spacks, *Imagining a Self: Autobiography and Novel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p. 197 참조.

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며 Mrs. Jervis에게 얘기하고, 그동안 무늬를 넣어 짜오던 B의 외투(waistcoat)만 완성하면 곧 떠나겠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 또 다시 접탈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바느질 일을 굳이 다 마치고서야 떠나겠다는 데에서, 우리는 B를 향한 연모의 정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사회상황에 잠시 눈을 돌려 본다면 그녀의 이 계속되는 출발연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도 하다. 18세기 영국은 가내 수공업이 퇴조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율이 높았고, 특히 여성노동력이 공급과잉이었기 때문에 하류층 여성들의 경우는 거의 최저임금으로 막일을 하거나 몸을 파는 여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흔했었다.²¹⁾ 그러므로 Pamela가 가난한 부모를 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어느 귀족집의 하녀로 들어가는 것이 최상책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앞서 때로 든 바 있듯이, 막노동을 하게 되기 쉽고 또 이도저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창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녀는 몸이 몹시 가냘프고(207), 백랍접시(pewter plate)에 광을 내려다가 금방 손에 물집이 잡히는 장면(109)에서도 보이듯이 그녀의 신체조건은 거친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Pamela가 Bedfordshire를 떠나 부모에게 돌아 가게 되면 B의 집요한 공세보다 더 큰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를 붙들어 두는 것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B를 향한 설명하기 어려운 자력(磁力)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Pamela는 Mrs. Jervis에게서 “그분은 가문이 좋고 너처럼 마음에 쏙 드는 여자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결혼한 마음이 있단다”(78)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는데 이것도 수상한 조짐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이런 무의식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곧 떠나겠다는 의지를 의식적으로 강조한다. 떠나겠다고 확고히 결심한 뒤에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Pamela는, “그분이 제게 악하게 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분의 행운을 빌어요. 마음씨 좋았던 주인마님을 위해서라도요”(99)라고 적고 있는데, 이 ‘주인마님을 위해서’라는 사족같은 말은 핑계로만 들린다. 그리고 Lincolnshire로 납치되어 갈 때 B에 대해 견잡을 수 없는 증오를 느끼면서도 그녀는 그의 소작인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왜냐면 그에게는 호감을 주는 자질들이 있기 때문에”(139)라고 하는 말도 범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B에 대한 Pamela의 은근한 연정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녀가 탈출할 때 입은 부상에서 거의 완쾌되어 가던 때이다. 그녀는 B가 Lincolnshire에 오게 되면 당할 일을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그가 사냥감을 쫓다가 개울물에 익사할 뻔했다는 소식에 접한다. 자기를 것처럼 못살게 굴던, 또 더욱 괴롭히리라고 예상되는 사람인데도 그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도대체 그가 내게 했던 모든 나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미워할 수 없음을 웬일일까? 나는 그분이 안전하다는 말에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비록 그가 죽으면 나는 자유로워지겠지만. (218)

Richardson이 아무리 천사같은 여주인공을 그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한 남성

21) Steeves, p. 96, Watt, p. 160 등 참조.

에 대한 사모의 정이 깃들인 여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 말을 한 뒤에 그녀는 “돌아가신 주인마님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존재를 기원해야 돼”(218)라며 B를 향한 연모를 의식적으로 감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속마음은 점점 더 표면으로 떠오른다.

드디어 Pamela는 바라던 대로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떠나기가 싫다고 느낀다.

나는 그집을 떠나기가 싫었다. 밀기 어려운 일이지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나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나는 너무나 이상한 어떤 것을 느꼈고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 나를 심란하게 했는지 의아해 한다. (280)

그리고 도중에 B가 보내 온 편지를 읽고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무나 이상한 어떤 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또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도둑처럼 기어서, 기어서 왔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가 알기도 전에 그것은 사랑처럼 보였다. (283)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자기 모습을 이제는 뚜렷이 응시하며 “나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결국[사랑의] 죄수가 되어 버렸어”(284)라고 독백한다.

Lady Davers와의 불편한 관계가 원만히 해결된 후, Pamela는 그녀에게 “제가 그분의 공격을 증오하기는 했지만 그분을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잘 되시기를 항상 기원했구요.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는 몰랐어요”(472)라며 솔직히 고백한다. 여기에서도 B를 향한 Pamela의 연정이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부터 차차로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浮上)되어 나왔다는 사실은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그들이 결합하게 되는 것이, B가 그녀의 편지들을 가로채 읽다가 그녀의 정숙함과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일방적으로 구혼한 끝에 그녀의 응락을 얻게 된 결과라고만 보는 것은 피상적인 분석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그들의 사랑은 그 표현이 왜곡되거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상대방에 대한 은근한 관심의 총화로서, 상호적(reciprocal) 성질의 것이다.

Pamela의 자기인식 과정을 그리는 데 있어 편지는 유효적절한 장치가 되고 있다.²²⁾ 그녀의 편지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극적 현재를 보여줌으로써²³⁾ 소설을 극화한다는 점 외에, 자기성찰, 자기 고백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그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중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반추하는 즐거움을 위해서(75),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을 훗날 돌이켜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130) 편지를 쓴다.

일기와 더불어 가장 자서전적 성격이 농후한 편지는 자아의 변화과정을 잘 포착할 수 있다.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장(場)이 되는 Pamela의 편지는 ‘언제나 진행 중에 있으며

22) Pamela가 Lincolnshire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일기체로’(journal-wise) 쓰는 ‘설명’(account)들도 사실은 Williams 목사에 의해 그녀의 부모에게 전달되고 또 나중에 그녀는 부모가 받아 보리라고 예상하고 쓰므로 편지로 보아 무방하다.

23) Richardson은 Lady Bradshaigh에게 보낸 편지(1756. 10. 9)에서 이러한 서술방식이 ‘Writing to the moment’라고 말한 바 있다.

Kinkead-Weekes (1973), p. 395에서 재인용.

혹은 진행 그 자체인 자아' 24)의 행적, 즉 그녀의 정신적 성장과정을 그리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 자아에 대해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글로 옮겨 전달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 적어도 잠재적인 관계를 확립시켜 주기 때문에 25), 편지는 Pamela가 자기본위적 윤리의식을 지양하고 공동체의 도덕률을 체득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 어

오늘날까지도 *Pamela*는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A. Kettle은 작품의 기법이 조야하고 편지형식은 지루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Pamela*는 중산층의 청교도 도덕율의 특별히 역겨운 면에 대한 기록으로서만 남아 있다”는 신랄한 비난을 가하고 있다. 26) 또 McKillop 같은 평자도 이 작품은 문학적 성공보다는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Joseph Andrews*나 *Clarissa*를 낳게 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나 그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27)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작품을 읽다 보면 도처에서 여러가지 흠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편지 31’까지는 사건이 극적으로 진행되지만 Pamela가 고향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작가는 불쑥 개입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그녀가 Lincolnshire로 납치될 것이며 그녀가 보낸 모든 편지들을 B가 가로채 읽어 왔다는 등, Pamela의 시점으로서의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을 친절하게 일러 준다. Richardson은 서문에서 이야기를 있음직하고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한 자신의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자연적 행위자(*deus ex machina*)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개입한 듯한데 아무래도 군더더기처럼 보인다. 그리고 B의 잦은 공격에서와 같이, 유사한 사건의 반복이 많고 압축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중대한 기법상의 결점이다. 아울러 Pamela가 Brandon-Hall에 갇힌 뒤 최초의 탈출을 시도하려다가 문앞에 버티고 서있는 황소때문에 포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왔더니 빈약한 암소였다는 것도(192), 그녀로 하여금 연못가에서 중요한 각성의 순간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결끄러운 작위로만 보인다.

그러나 Richardson이 *Pamela*를 통하여 보여 주는 몇가지 선구자적 면모들은 이러한 결점들을 상당한 정도로 상쇄시킨다. 먼저, 그가 그리는 주인공들은 우화적이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개성적 인물들이다. Pamela에 관해 보면,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B를 향한 야릇한 연정과 그것을 억누르려는 또다른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전 B나 Lady Davers에게 당돌할 정도로 임바른 소리를 하는 대목(55, 66, 413, 414) 등에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개성이 뚜렷하다. 그리고 사회적 체면과 연애감정사이에서 부대끼며 갈피를 못 잡는 B도 분명 판에 박힌 귀족상은 아니며, 생동감있게 묘사되고 있다. 아울러 역세고 심술궂은(나중에 회개하기는 하지만) Mrs. Jewkes나, Pamela의 부친으로서 순박하면서도 회극적인 Goodman Andrews 등도 독특한 개성을 부여받고 있다.

다음으로 Pamela의 편지쓰기에 관해 볼 때, 우리는 그녀가 단지 편지를 쓰는 데에만 그

24) James Olney, “Autobiography and the Cultural Moment: A Thematic, Historical and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Autobiography: Essays Theoretical and Critical*, ed. James Olne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 25.

25) Spacks, p. 223 참조.

26) Arnold Kettle,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Novel*, Vol. 1: To George Eliot (London: Hutchinson & Co., 1961), pp. 64-65 참조.

27) McKillop (1956), pp. 62-63 참조.

치지 않고, 남들이 쓴 편지까지도 옮겨 적는 가운데 그것들을 정리, 편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Pamela*는 그녀 편지들의 저자이며 동시에 편집자인 셈이며, 그것들을 읽어 보는 B나 그녀의 부모들은 독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녀의 편지쓰기는 작가가 소설을 쓰는 행위와 유사해 진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 소설을 쓰고, 편집하며 심지어는 읽기도 하는 것은 이른바 Chinese-box기법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Gide의 *Les Faux-Monnayeurs* (1925)에서와 같은 실험정신을 찾아 볼 수 있다.²⁸⁾

마지막으로, *Pamela*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면은 내면심리의 천착일 것이다. Diderot는 이 점을 일찍 간파하고서 “(그는) 깊은 동굴로 햇불을 가져 간다. 다른 동기(動機)들의 밑에 가려 있고 감추어진 미묘하고 솔직하지 못한 동기들을 판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그다”²⁹⁾라며 Richardson을 격찬했다. 그리고 Samuel Johnson도 Fielding과 Richardson을 그들이 그려내는 인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비교하며, Richardson의 ‘성격적 인물’(characters of nature)이 Fielding의 ‘풍습적 인물’(characters of manners)보다 우월하다면서, 그 이유가 Richardson의 인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깊은 곳으로 뛰어 들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⁰⁾ 그리고 Richardson은 주인공 Pamela의 심리상태를 그리기 보다는 그 변화과정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을 있을 법하게 전개시킨다.

이 미묘한 심리의 추이는 주인공의 도덕적 성장이나 자기인식과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Pamela는 도덕적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신적 갈등과 고난을 거치며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도덕의식을 배우게 된다. 또 B에 대한 사랑의 정체를 파악해 가면서 한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인공이 바람직한 사회적, 성(性)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정신적 여정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Pamela는 훗날 소설양식이 애용하게 된 자기발견의 주제의 원형을 보여 주며, 이러한 이유로 Pamela는 비록 조야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성장소설(Bildungsroman)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Richardson이 이와 같은 근대적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이 Pamela를 근대소설의 효시로 인정받게 한 중요한 근거라고 하겠다.

Bibliography

- Carroll, John, ed. *Samuel Richard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 Cowler, Rosemary, ed. *Pamela: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 Kettle, Arnold.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Novel*. Vol. I : To George Eliot. London: Hutchinson & Co., 1961.
- Kinkead-Weekes, Mark. *Samuel Richardson: Dramatic Novelist*. London: Methuen, 1973.
- Lukács, George. *The Theory of the Novel: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trans. Anna Bostock. Cambridge, Mass.: MIT Press, 1971.
- McKillop, Alan Dugald. *The Early Masters of English Fiction*. Lawrence, Kansas: Univer-

28) McKillop (1969), pp.140-141 참조.

29) John Carrol, "Introduction," *Samuel Richard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9에서 재인용.

30) Watt, p.297 참조.

- sity of Kansas Press, 1956.
- Olney, James, ed. *Autobiography: Essays Theoretical and Critical*.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Rogers, Pat. *The Augustan Vision*. London: Methuen, 1974.
- Spacks, Patricia Meyer. *Imagining a Self: Autobiography and Novel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Steeves, Harrison R. *Before Jane Austen: The Shaping of the English Novel in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Watt, Ian.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3.